

중국 연변 지역 방언 ‘바쁘다’의 의미 확장 연구*

전 은 경 **

- 1. 서론
 - 1) 연구 목적
 - 2) 연구 방법
 - 3) 선행 연구
- 2. ‘바쁘다’의 의미 확장 양상
 - 1) 기본 의미
 - 2) 현대 한국어에서도 쓰이는 확장 의미
 - 3) 연변 방언에서만 쓰이는 확장 의미
- 3. 의미 확장 방향
- 4. 의미 확장 원인
- 5. 결론

1. 서론

1) 연구 목적

우리의 언어생활을 살펴보면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며 때로는 사전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실생활에서는 쓰이고 있는 의미도 존재한다. ‘바쁘다’의 경우 현대 한국어에서는 다의어로 그 의미가 각 사전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비슷하게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중국 연

* 이 논문은 BK21 플러스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음.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번 지역 방언에서의 ‘바쁘다’는 현대 한국어 사전에 기술된 의미 외에도 아주 다양한 의미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현재 중국 조선족들이 사용하는 『조선말 사전』에서 ‘바쁘다’는 현대 한국어 사전에 기재되지 않는 의미가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전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실생활이나 보도매체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의미가 많이 존재한다.

중국 조선족은 한반도에 뿌리를 둔 민족으로서 현재 한국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권이 다른 두 나라에서 생활하며 주위 환경 특히 중한국어와 북한 문화어의 영향을 받은 중국 조선어와 한국어는 같은 어휘에서도 의미 차이를 보인다. 바로 두 언어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변화 발전하면서 이질현상을 겪게 되는 것이다. 하여 한국인과 중국 조선족은 서로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심지어 다른 뜻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본고에서는 연변 지역 방언에서의 ‘바쁘다’의 의미 확장을 다루며 ‘바쁘다’의 의미 확장 방향과 원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한국어의 ‘바쁘다’의 의미와 연변 방언의 ‘바쁘다’의 의미 확장 양상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하여 한국어를 잘 구사하기를 원하는 중국 조선족들에게 의미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줌으로써 한국어 학습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사전 기술, 교재 개발과 두 언어를 구사하는 언중들의 교류에 있어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2) 연구 방법

의미 확장과 관련된 연구에서 대부분 다의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기본 의미와 파생 의미를 분류하여 그들의 유사성을 찾는 데 집중한다. 본고는 다의어에 존재하는 문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해명해 줄 수 있는 방법론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을 활용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고의 주요 연구 대상은 연변 방언의 ‘바쁘다’이다. ‘바쁘다’는 현대 한국어에서도 다의어로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연변 방언의 ‘바쁘다’는 한국어보다 그 의미 확장이 더욱 복잡하며 사전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실생활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의미가 아주 많다.

본고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선 한국어 ‘바쁘다’와 연변 방언 ‘바쁘다’의 의미 확장의 비교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한국어의 ‘바쁘다’는 각 사전에 기재되어 있으

며 실생활에서도 대체로 사전 속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연변 방언의 '바쁘다'의 경우 사전에 기재된 의미 외에도 실생활에서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또한 어휘는 고립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 의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문장에서 '바쁘다'와 공기할 수 있는 다른 성분을 모두 살펴보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런 작업을 통해 의미 확장 과정에서 찾을 수 있는 새로운 특징을 해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쁘다'의 용례 추출작업이 아주 중요하다. 한국어의 '바쁘다'의 경우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현대한국어 용례검색기(SJ-RIKS Coorpus)'를 사용하여 용례를 추출하였다. 연변 방언의 경우 현재 말뭉치가 구축 단계에 머물러 있어 조선말로 작성되는 '인민넷' 기사와 연변 지역에서 출간한 소설, 그리고 연변 지역 언중들의 구어를 잘 보여주는 '연변텔레비죤방송국'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소품 대사들에 나타나는 '바쁘다'의 용례를 추출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어와 연변 방언에서의 '바쁘다'의 의미 확장 양상을 살펴보고 중점적으로 연변 방언의 '바쁘다'의 의미 확장 양상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연변 방언의 의미 확장 방향과 그 원인에 대해 논의한다.

3) 선행 연구

연변 방언은 한국어의 일부이지만 현재까지 연구된 바가 거의 없고 다만 북한의 함북 북부지역어인 육진(六鎮) 방언 또는 육읍(六邑) 방언을 연구하기 위한 기반이 되어왔다. 근래 연변 방언의 연구가 점차 진행되기 시작하였지만 대부분 연구가 음운과 어법에 집중되어 있다. 그 결과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함북 방언과 연변 방언의 음운과 통사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였고 어휘에 대해서는 체언을 위주로 조사와 자료 수집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전학석(1998)은 방언학적 연구방법으로 연변 방언을 '육진 방언'과 '함경북도 방언' 구역으로 분류하여 음운, 형태, 문장, 어휘 등을 논의하였다. 최명옥 외(2002)는 연변 방언 중 도문-월청, 훈춘-밀강, 훈춘-화룡, 통정-삼합 지역의 음운, 어법, 어휘 등을 조사하였다. 이주행(2003)은 오늘날 한국과 중국 조선족 사

회에서 쓰이고 있는 언어의 표기, 발음, 어휘, 문법 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한국과 중국 조선족사회의 언어가 여러 면에 걸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음을 밝혔다. 이정희(2002)는 남북한과 조선족이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를 인식하고 한민족의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해 남북한 그리고 조선족이 사용하는 한국어를 비교 고찰하였다. 중국 연변에서 태어나 조선어를 사용하면서 성장한 필자는 남북한과 중국 조선어의 어휘 차이를 직접 경험하였다. 남북한과 조선족어의 어문규범화 기준의 비교, 방언의 차이, 외래어의 차이, 호칭어의 차이, 신조어의 비교, 어휘정리의 차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정향란(2010)은 룽정-삼합 지역을 조사 대상으로 연변 조선족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언의 곡용과 활용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연변 방언을 한국어의 일부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연변 방언에 대한 연구는 음운, 문법, 어휘 및 사용을 위주로 연구해 왔다. 이밖에 몇 년 사이에 연변 방언의 어휘 의미에 대한 연구도 점차 시작되고 있다.

박홍매(2014)에서는 연변 방언 어휘와 한국어에서 쓰이는 같은 어휘의 의미적 차이와 형태적 차이에 대해 연구하였다. 하지만 형태를 위주로 다루었고 의미의 차이에 대해서는 그 양상만 간단히 적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박춘설(2012)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조선어의 어휘 의미차이를 살펴보고 중국 조선족 고등학생을 위한 어휘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기숙(2011)에서도 한국어와 중국 조선어의 어휘의 차이를 살펴보고 조선족 학생을 위한 어휘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 연구들을 살펴보면 한국어와 연변 방언의 어휘의 차이 혹은 어휘 의미의 차이를 포착했다고 해도 그것을 나열하고 양상을 기술한 데만 그친 것에 아쉬운 점이 있다. 앞선 논문들에서는 어휘 의미의 차이를 의미론적으로 바라보기보단 교육학적으로 어휘의 의미 차이를 찾아내고 교육방법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연변 방언의 어휘에 대한 의미 확장 양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 의미 확장 방향, 확장 원인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힘든 시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 공백에 일정한 도움이 되고자 연변 방언의 형용사인 '바쁘다'의 의미 확장 양상과 방향 및 원인을 논의하고자 한다.

2. '바쁘다'의 의미 확장 양상

1) 기본 의미

기본 의미는 학자들에 의해 원형의미로도 불리고 있는데 원형(prototype)이란 그 범주를 대표할 만한 가장 '전형적', '적절한', '중심적', '이상적', '좋은' 보기를 말한다(임지룡 1997:64).

'바쁘다'는 어떤 일로 인하여 겨를이 없거나 분주한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바쁘다'의 의미 확장을 기술함에 있어서 우선 기본 의미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바쁘다'의 기본 의미를 설정하기 위하여 우선 각 사전에 나타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바쁘다'의 사전 뜻풀이

사전명	번호	뜻풀이	용례
표준한국어 대사전	1	일이 많거나 또는 서둘러서 해야 할 일로 인하여 딴 겨를이 없다.	눈코 끌 새 없이 바쁘다.
	2	몹시 급하다.	뒷집에 사는 노인이 고의춤을 잔뜩 움켜잡고 바쁘게 걸어 내려온다.
	3	한 가지 일에만 매달려 딴 겨를이 없다.	그는 먹고살기에 바빴다.
	4	어떤 행동이 끝나자마자 곧의 뜻을 나타낸다.	그는 밥숟가락 놓기 바쁘게 다시 나갔다.
고려대 한국어사전	1	(사람이) 일이 많거나 급해서 분주하고 겨를이 없다.	젊을 때에는 바쁘게 사는 게 좋다.
	2	(행동이) 몹시 급하고 빠르다.	임무량이 정해지자 직공들의 손놀림이 바쁘다.
	3	(시간이나 일정 따위가) 충분하지 않아 여유가 없다.	희철이는 출근 시간이 바빠 넥타이도 제대로 못 맸다.
	4	주로 '-기가 바쁘게' 구성으로 쓰여 '그러한 행위를 하자마자 서둘러'의 뜻을 나타내는 말.	사공은 손님들이 배에 오르기가 바쁘게 배를 띄웠다.

우리말 큰사전	1	많거나 서둘러서 해야 할 일 때문에 딴 겨를이 없다.	농사철이라 시골은 한창 바쁘다.
	2	몹시 급하다.	마음만 바쁘지 되는 일은 없다.
	3	주로 '-기가 바쁘게'로 쓰이어 '어떤 행동이 끝나자 곧'의 뜻	밥술 놓기가 바쁘게 쓰려져 잤다.
연세한국어 사전	1	할 일이 많거나 급해서 시간적 여유가 없다.	아주머니는 눈코뜰새 없이 바쁘다.
	2	(무엇이) 서둘러 해야 하거나 급한 상태에 있다.	그는 일이 바빠 매일 밤 늦게 집으로 돌아간다.
	3	몹시 급하거나 서두르고 있다.	논에는 벼를 베는 농부들의 손길이 바쁘다.
	4	-기가 바쁘게 (어떤 행동이) 끝나자마자	그는 집에 들어서기 바쁘게 다시 나갔다.

각 사전에서의 '바쁘다'의 의미는 대체로 비슷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서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위의 사전에 나타는 의미를 종합하여 '바쁘다'의 의미를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바쁘다'의 의미

- ① 여러 일이나 급한 일로 겨를이 없다.
- ② 몹시 급하다.
- ③ 한 가지 일로 겨를이 없다.
- ④ 시간이나 일정이 여유가 없다.
- ⑤ (무엇이) 서둘러 해야 하거나 급한 상태에 있다.
- ⑥ '-기 바쁘게' 형으로 (행동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위와 같이 '바쁘다'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다의어이며¹⁾ 여러 의미들이 서로

1) 동일한 형태를 가진 어휘항목이 가지는 여러 의미에 대하여 다의어인지 동음이의어인지를 구별하는 것에 대하여 임지룡(2009)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정했다. 다의어는 동일한 형태를 지닌 언어적 용법들에 대하여 하나의 범주로 파악한 것이며 동음이의어는 둘 이상의 범주로 파악한 것이다. 전형적인 다의어나 동음이의어는 의미적 관련성이 뚜렷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그 식별이 용이하지만 경계선상의 용법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시 된다. 이렇게 동일한 형태의 언어적 용법에 대해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의 처리가 불투명한 경우 원형의미를 중심으로 관련된 용법에 공유되는 둘 이상의 핵심 의미를 부여하거나 의미 연쇄의 과정을 고려하여 다의어를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판정 기준에 따르면 '바쁘다'도 다의어가 된다.

연관성이 높은 편이다. 사전에 제시된 정의와 용례를 통해 ‘바쁘다’는 ‘겨를이 없다’, ‘급하다’, ‘서두르다’ 등 의미로 쓰이며 주로 ‘해야할 일’ 또는 ‘시간’과 함께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바쁘다’의 기본 의미를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그 의미의 연관성이 높아 문맥적인 차원에서의 검증도 필요하다. 따라서 현대 한국어 말뭉치에²⁾ 나타난 용례를 통해 문장에서 다른 성분들과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는 작업을 통해 ‘바쁘다’의 기본 의미를 설정하고자 한다. 다음은 말뭉치에서 추출한 ‘바쁘다’의 예문이다.

(1) 가. 아버지는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영숙이는 어찌나 바쁜지 밥도 제때에 챙겨먹지 못한다.

나. 개미들은 무엇이 그리 바쁜지 빨리 움직이고 있었다.

다. 개그우먼 송은이는 많은 스케줄로 매일 바쁘게 보낸다.

영철이는 회사 일에 바빠 야근을 밥먹듯이 한다.

라. 제 살기도 바쁜 세상에 남의 걱정까지 할 겨를이 있습니까?

그는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도 바빴다.

사건이 터지자 기자들은 너도나도 기사 쓰기에 바쁘다.

예문 (1가)와 (1나)를 보면 모두 '[주체]가 바쁘다'의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주체'에 사람이나 동물이 모두 올 수 있다. 사전적 정보에 의하면 '바쁘다'는 주로 '겨를이 없거나 매우 분주한'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사람'과 결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그러나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이 겨를이 없거나 분주한 움직임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1나)처럼 생명이 있는 동물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상태도 '바쁘다'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예문 (1다)와 (1라)는 모두 '주체'이외 다른 논항이 존재하는 예문들이다. (1다)는 '[주체]가 [원인](으)로 바쁘다' 형태로 나타났고 (1라)는 '[주체]가 [원인]기 바쁘다'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주체]가 [원인](으)로 바쁘다'의 경우 [원인]은 주로 '완성해야 할 임무나 일' 따위에 해당하며 체언이 온다. '[주체]가

2) 본 논문에서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현대한국어 용례검색기(SJ-RIKS Coorpus)'를 사용하여 용례를 추출하였다.

[원인]기 바쁘다'의 경우 [원인]은 주로 '구체적인 한가지 일'에 해당하며 주로 동사가 이 자리에 오게 된다. 따라서 [원인]인 동사 뒤에는 명사형 전성 어미 '-기'가 오게 된다. 이 특징들을 종합하여 '바쁘다'의 기본 의미와 공기 관계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바쁘다'의 기본 의미와 공기 관계

기본 의미	공기관계		용례
	주체	원인	
[주체]가 [원인]으로 겨를이 없거나 분주한 상태.	유정물	X	아버지는 요즘 바쁘시다.
	유정물	체언+(으)로	영희가 공부로 바쁘다.
	유정물	동사+기	그는 먹고 살기도 바쁘다.

표와 같이 '바쁘다'의 기본 의미는 [주체] 논항과 무조건적으로, [원인] 논항과 수의적으로 결합한다. [원인] 논항과 결합할 때 체언일 때는 '-(으)로'가 오고 동사일 때는 '-기'가 온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바쁘다'는 주로 사람이나 동물과 같이 감각이 있고 움직이는 유정물과 결합관계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바쁘다'의 [주체]는 '사람이나 동물'로서 [+유정물]이라는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다.

2) 현대 한국어에서도 쓰이는 확장 의미

2장 1절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사전에서 제시한 '바쁘다'의 의미는 6가지로 종합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기본 의미 외에 사용된 의미는 의미 확장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바쁘다'의 확장 의미에 대하여 코퍼스를 통해 다양한 문맥에서 '바쁘다'의 용법을 확인한 후에 기본 의미와 달리 쓰인 용례를 통해 살펴보려고 한다.

(1) 사전에 등재된 확장 의미

'바쁘다'의 의미를 전반적으로 밝히려면 다양한 생성요인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쓰이는 경우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용례와 문맥에서 쓰인 '바쁘다'에 대하여 기본 의미 외에 달리 쓰인 경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2) 가. 반찬가게에 제일 바쁜 때가 식전, 저녁이라.
 나. 그는 시간이 바빠 급히 문을 나섰다.
 다. 재희는 하루 중에서 아침이 가장 바쁘다.

예문 (2)를 통해 '바쁘다'는 시간과의 결합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식전', '저녁', '아침' 등은 모두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로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단어들이다. 문맥에 의해 해석해 보면 (2가)에서 '바쁘다'는 '식전', '저녁'과 결합하여 '이 시간때에 할 일이 아주 많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고 (2나)와 (2다)는 '시간'이나 '아침'과 결합하여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바쁘다'는 시간과 관련된 어휘들과 결합함으로써 다양한 의미를 부여받는다.

2장 1절에서 본 '바쁘다'의 기본 의미의 [주체]는 [+유정물] 의미자질을 갖고 있다. 하지만 '바쁘다'가 시간 관계 어휘와 결합할 때는 '시간이 바쁘다', '아침이 바쁘다'와 같이 [주체] 자리에 시간 관계 어휘가 오게 되며 따라서 [주체]가 [+유정물]이 아닌 [+시간] 의미자질을 갖게 된다. 즉 '바쁘다'가 시간 관계 어휘와 결합하면서 기본 의미인 '겨를이 없거나 분주하다'에서 '할 일이 많거나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뜻으로 의미가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확장 의미는 각 사전에 이미 등재되어 있는 의미로서 2장 1절에서 종합한 '바쁘다'의 의미 중에서 '바쁘다④'에 해당한다. 이처럼 '바쁘다'는 사람이 겨를이 없거나 분주한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에서부터 시간이 부족하거나 여유롭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는 데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2) 실생활에서 쓰이는 확장 의미

우리의 언어생활을 관찰해보면, 하나의 단어에 그 전에는 없던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어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존재 한다. 이때 새로 생긴 의미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의미로서 언중들의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그 단어의 새로운 의미인 듯 자연스럽게 사용되기도 한다.

'바쁘다'도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와 같은 문맥속에서 쓰이고 있다.

(3) 가. 그는 담벽에 박쥐처럼 붙어 있다가 문을 열고 환국이 내다보자 허겁지겁
다가왔다.

“나하고 가주어야겠다.”

“하여간 들어와. 나가는 건 어려잖으니까.”

“그게 아니다. 사정이 바쁘다.”

일상복인 듯 두 번 만났을 때보다 수봉의 차림은 초라했다기보다 남루했다.

박경리, 1993 『토지』, 솔출판사

(3가)는 소설속의 인물 수봉이와 환국이의 대화내용이다. 수봉의 대화 내용 중 우리는 ‘사정이 바쁘다’를 발견할 수 있는데 앞뒤 문맥을 살펴 볼 때 이 문장은 ‘사정이 변변치 못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4) 가. 누가 오지 않나 싶어서 힐끗힐끗 뒤돌아보던 강포수는 마음이 바빴다.

박경리, 1993 『토지』, 솔출판사

나. 배도 고파서 귀가길을 서두르고 싶었고, 그놈의 졸업 논문의 진척이 위낙
지지부진해서 마음이 바빴던 탓이다.

김원우, 1992 『벌거벗은 마음』, 솔출판사

예문 (4) 역시 소설 속에 나타나는 용례이며 (4가)와 (4나)에서 모두 ‘바쁘다’와 ‘마음’이 결합하였다. 문맥에 의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면 (4가)의 ‘마음이 바빴다’는 ‘마음이 급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4나)의 경우 문맥적으로 ‘마음이 급하다’ 혹은 ‘마음이 힘들다’로 모두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

이처럼 ‘바쁘다’는 [+유정물]과만 결합하여 ‘여유가 없거나 분주한 상태’를 나타내던 것으로부터 ‘사정’, ‘마음’ 등 어휘와 결합하여 ‘변변치 않다’, ‘힘들다’ 등 의미로 확장되었다.

〈표 3〉 한국어 ‘바쁘다’의 확장 의미

확장 의미	공기관계		용례
	주체	원인	
부족하다.	시간	X	아침이 항상 바쁘다.
변변치 않다.	사정	X	요즘 사정이 바쁘다.
힘들다.	마음	X	마음이 바쁘다.

한국어에서 '바쁘다'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하여 그 의미가 '시간이 부족하다'로 확장되는 경우는 비교적 자연스럽고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사정'이나 '마음' 등과 결합하는 경우는 용례의 수가 '시간'에 비해 급격히 적으며 언중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 실제 용례를 검색하는 단계에서 1900년도 초기 소설 작품에서만 이와 같은 확장 의미로 쓰인 용례가 발견될 뿐 그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3) 연변 방언에서만 쓰이는 확장 의미

연변 방언에서 '바쁘다'는 아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연변 방언에서의 '바쁘다'는 한국 표준어의 '바쁘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외에 여러 가지 연변 방언에만 존재하는 의미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의미의 일부는 『조선말사전』에도 수록되어 있다.

〈표 4〉 『조선말사전』의 '바쁘다' 뜻풀이

번호	뜻풀이	용례
1	일이 많거나 급히 해야 할 일로 겨를이 없다	일이 바쁘다
2	매우 급하다	바쁜 걸음을 하다
3	'-기가 바쁘게' 형으로 어떤 일이나 현상이 끝나자 곧	그 애는 가방을 놓기 바쁘게 문밖으로 뛰쳐 나갔다
4	힘에 부치거나 참기 어렵다	어제 과음을 했더니 속이 바쁜 것을 가까스로 참고 있다
5	매우 딱하다	보기 바쁘다

『조선말사전』의 '바쁘다'의 뜻풀이를 보면 모두 5가지 뜻으로 나타난다. 그중 1, 2, 3번의 의미는 각 한국어 사전에 등재된 '바쁘다'의 뜻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밖에 4, 5번 의미는 한국어 사전에는 등재되지 않고 또 한국어 화자들도 사용하지 않는 의미이다.

(1) 『조선말사전』에 등재된 화장 의미

- (5) 가. A: 미안하다, 취해서 자느라구 전화 못 받았다. 술만 먹으루 피곤해서...
 B: 오늘 출근 안 하니? 속은 괜찮니?
 A: 말두말라 속이 바빠 죽겠다!

소품 <여자는 못 취하나요>

나. 할아버지: 일어났소?

할머니: 예, 일어났으꾸마, 화장실에 있으꾸마.

할아버지: 또 신문 가지구 들어갔소? 빨리 빨리 나오, 나두 지금 바쁜.

소품 <우리 집 문제>

다. 저 녀석이 인젠 숨찬 모양이구나. 두 어깨가 아까보다 더 세차게 오르내리는구나. 숨이 쳐 거다. 정 바쁘면 아예 물러서라구. 끌 보기 가공하다구. 계속 뛰는 걸 보니 물러서긴 싫은 모양이지?

‘마음의 그림자’/2007년 11월 20일

라. 감기 몸살에 몸이 바빴지만 순이는 찾아온 친척들에게 정성껏 밥을 대접했다.

왕청현 무던한 며느리/2010.02.24.

예문 (5)는 모두 『조선말사전』의 ‘바쁘다’의 의미 중 ‘힘에 부치거나 참기 어렵다’의 의미로 쓰여진 예들이다. (5가)는 소품 <여자는 못 취하나요>에서 두 친구의 대화인데 문맥을 살펴보면 A가 숙취로 인해 속이 쓰리고 아픈 내용을 다룬 대화이다. 이를 ‘속이 바쁘다’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때 ‘바쁘다’는 ‘몸이나 마음이 편하지 않고 고통스럽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5나)의 소품 <우리 집 문제>에서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대화를 보면 문맥을 통해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고 하시면서 ‘나두 지금 바쁜’라고 했다. 여기에서의 ‘바쁜’은 ‘바쁘다’에 연변 방언 어미 ‘우’가 결합한 형태로 ‘나두 지금 바쁘다’는 ‘나도 지금 볼일이 바쁘다’에서 ‘볼 일’이 생략된 것으로 이 때 ‘바쁘다’는 ‘몸이나 마음이 편하지 않고 고통스럽다’의 뜻으로 쓰인다.

(5다)에서 ‘정 바쁘면 아예 물려서라구’라는 문장은 ‘바쁘다’ 앞에 ‘몸’이 생략된 것으로 전체적인 문장은 ‘몸이 바쁘면 아예 물려서라구’가 된다. 이 예문에서 ‘바쁘다’는 ‘몸’과 결합하여 ‘몸이나 마음이 편하지 않고 고통스럽다’의 의미로 쓰

이고 있다. (5라)도 (5다)와 마찬가지로 '몸이 바쁘다'로 '바쁘다'가 '몸'과 결합하여 쓰이며 그 의미는 '몸이나 마음이 편하지 않고 고통스럽다'이다. '바쁘다'가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한국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예문 (4)와 같다. 하지만 한국어에서 그 용례가 적으며 1900년대의 문학작품에서만 발견된 것과 달리 연변 방언에서는 아주 활발히 쓰이고 있다.

(5)의 예문들을 살펴보면 연변 방언 '바쁘다'는 '[주체]가 바쁘다'의 형태로 나타나며 [주체가]에 '몸'이나 '속'이 쓰일 때 그 의미가 '몸이나 마음이 편하지 않고 고통스럽다'로 확장된다.

(6) 가. 나: 너네 아들 오늘 병원 갔대?

친구: 응, 링거 맞구 왔다.

나: 고 쪘꼬만 손에다 링거 맞았다고? 또 울어 번저겠겠구나.

친구: 응, 기절하매 우는게 막 보기 바쁘더란. 불쌍한게...

소품 〈셋집살이〉

나. 관련 보도와 사진은 웨이보(微博)를 통해 확산됐으며 네티즌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대다수 네티즌은 "(아버지를) 인간이라고 할 수 있나?", "보기 만 해도 화가 난다", "저런 아버지는 부양권을 박탈시켜야 한다", "아이가 너무 보기 바쁘다",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격렬한 비난을 퍼부었다.

"비정한" 부친, 6세 딸 벌거벗겨 흡연시키며 구걸/2013.07.05.

다. 도시학교에 비해 시설이 뒤떨어진건 제쳐놓고 읽을만한 과외서적도 별반 없는 향촌학교 아이들이 보기 바빴는지 그는 자신의 소속학교에 학습자료를 부탁하고 중학생신문, 중학생잡지 등 관련 부문에 과외서적지원을 요청하기도 한다.

이 학교, 정열과 랑만으로 흡뻑/2008.12.04.

위에서 제시한 (6)예문들은 『조선밀사전』에서 등재된 '바쁘다'의 '매우 딱하다'의 의미로 쓰인 예문들이다. (6가)는 친구와 나의 대화로 친구가 자신의 아들이 작은 손에 링거를 맞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불쌍하고 딱하다는 것을 '보기 바쁘다'로 표현하고 있다. (6나)는 자신의 어린 딸을 벌거벗기고 구걸하게 하는 아버

지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으로 아이가 불쌍하고 딱하다는 것을 ‘아이가 너무 보기 바쁘다’로 표현했다. (6다)는 시설이 뒤떨어진 향촌학교 아이들이 불쌍하고 딱하다는 것을 ‘보기 바빴는지’로 표현했다.

(6)의 예문들은 모두 ‘보기 바쁘다’로 나타났는데 각각 ‘내가 보기 바쁘다’, ‘나는 아이가 너무 보기 바쁘다’, ‘그는 아이들이 보기 바빴다’에서 주어가 생략된 형태이다. 생략된 주어를 회복하여 보면 모두 ‘[주체]가 [보-]+기 바쁘다’ 결합 형태로 앞에서 이미 토론했던 ‘[주체]가 [동사]+기 바쁘다’ 형태로 ‘보다’에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하였다. ‘보기 바쁘다’는 ‘바쁘다’의 기본 의미와 같은 결합 형태를 보이지만 동사 중에서 오직 ‘보다’와 결합할 때만 그 의미가 ‘사정이나 처지가 애처롭고 가엾다’의 의미로 확장된다.

(2) 실생활에서 쓰이는 확장 의미

연변 방언에서의 ‘바쁘다’는 『조선말사전』에 등재된 뜻 이외에도 실제로 아주 많은 확장 의미로 쓰이고 있다.

(7) 가. 나: 초초야, 이번 기중 시험 잘 체?

조카: 잘 모르겠음다.

나: 어째 시험이 바쁘네?

조카: 어떤 과목은 바쁜데 영어라메느 헛습데다.

소품 〈심부름〉

나. 《먼저 쉬운곳 후에 바쁜곳, 먼저 큰곳 후에 작은곳》이라는 원칙에 따라 선후로 62개소 비공동소유제기업에서 당조직을 건립하였는데 응당 건립해야 할 기업소에 다 건립한셈으로 된다.

비공동소유제기업소 당건설강화사업모식/2006.12.19.

(7가)는 소품 〈심부름〉 속의 나와 조카의 대화로 조카의 기중 시험을 토론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내가 ‘시험이 바쁘네’라고 묻자 조카가 ‘어떤 과목은 바쁘다’라고 대답했다. 여기에서의 ‘바쁘다’는 ‘하기가 까다로워 힘에 겹다’는 의미로 ‘어렵다’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조카의 대화에서 ‘헷다’는 ‘쉽다’의 연변 방언으로 이와 ‘바쁘다’를 대조하면 ‘어떤 과목은 바쁜데 영어랑은 쉽다’로 ‘바쁘다’

가 '어렵다'와 같은 의미로 쓰였음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7나)에서의 '바쁘다'도 앞에 나타나는 '쉽다'와 대조하여 볼 때 '하기가 까다로워 힘에 걸다'는 '어렵다'의 의미로 쓰이었음을 알 수 있다.

(7가)에서의 '바쁘다'는 '시험', '과목' 등과 결합하여 쓰여 '시험에 어렵다', '과목이 어렵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고 (7나)는 '후에 바쁜곳'으로 완정한 문장은 '어떤 부분이 바쁘다'가 될 것이며 '부분'과 결합하여 쓰였다. 즉 '바쁘다'의 기본 의미와 동일하게 '[주체]가 바쁘다'의 결합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주체]가 [+유정물]이 아닌 '시험', '과목', '부분' 등 [-유정물]과 결합하면서 그 의미가 기본 의미에서 '어렵다'라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이 때 '바쁘다'의 주체는 [-유정물]이면서 이해해야 하거나 완성해야 할 내용을 나타내는 [+내용] 의미자질을 가진 어휘들이다.

예문 (7)과 같이 '하기가 까다로워 힘에 걸다'의 의미로 쓰인 '바쁘다'는 현재 연변 방언에서 가장 많이 쓰이며 '바쁘다'의 기본 의미보다도 그 사용빈도가 높다.

(8) 가. “저 돈은 아버지가 오면 몸보신에 쓸 돈이니 써서는 안 된다. 아무리 생활이 바쁘다 해도 그 돈만은 써서는 안 된다.”

중편소설 『아, 동년』(4)/2011.10.24.

나. 아래집 아줌마가 시장에서 옷가게를 경영하였는데 내가 돈이 없어 매대에 가 옷을 쥐고 망설일 때면 아줌마는 선뜻이 먼저 가져다 입으라고 한다. 돈이 바쁘지 않을 때 돈을 가져와도 된다기에 이렇게 먼저 가져다입고 후에 옷값을 가져다준것도 얼마인지 모른다.

정 많은 5층집 아줌마/2007년 05월 23일

다. 우리 시누이들은 모두 한국 가 돈 많이 벌면서도 시어머니 생활비를 보내지도 않소. 농촌에서 바쁘게 사는걸 알면서도 한푼 보내지 않으니까 얼마나 괘씸한지 모르겠소.

농촌로인부양 좌시할수 없어/2007년 08월 16일

예문 (8가)는 아버지가 몸보신에 쓰는 돈이어서 쓰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생활이 바쁘다'로 쓰여 '살림이나 생활 따위가 궁핍하여 살기가 고생스럽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8나)에서 '바쁘다'는 '돈'과 함께 결합하여 '돈이 부족하거나

나 생활이 어렵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8다)는 문맥을 살펴보면 ‘농촌의 생활이 어렵거나 고생스럽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 경우 ‘바쁘다’는 '[주체]가 바쁘다'의 결합으로 [주체]는 ‘생활’, ‘살림’, ‘돈’ 등 경제와 관련된 어휘가 오게 되며 이들과 결합하여 ‘살림이나 생활 따위가 궁핍하여 살기가 고생스럽다’라는 의미로 확장되어 쓰인다. 앞의 예문 (3)과 같이 한국어의 용례에서도 이와 같은 확장 의미로 쓰인 ‘바쁘다’의 용례를 찾아 볼 수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그 사용빈도가 낮다.

(9) 가. A: 오늘 회의 참가했다며 령도가 무슨 말 하네?

B: 야 행님에 말두마우, 회의 내내 어찌나 앉아있기 바쁘던지 혼났소.

소품 〈립시국장〉

나. 나는 친척들 사이에 앉아있기 바빠 조용히 나와버렸다.

립원춘, 『몽당치마』

예문 (9)는 ‘바쁘다’가 ‘앉아있다’에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한 경우이다. 이 경우 역시 '[주체]가 [동사]기 바쁘다'의 결합 형태로 쓰였지만 [동사]의 위치에 ‘보다’가 올 때와 마찬가지로 [동사]의 위치에 ‘앉아있다’가 올 때 새로운 확장의 미를 지니게 된다. 문맥을 살펴보면 (9) 모두 ‘너무 더디거나 지루하여 견디기에 진력이 낫다’라는 의미로 ‘갑갑하다’로 대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연변 방언에서는 '[주체]가 [동사]기 바쁘다'의 결합 형태에서 [동사]의 다름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데 ‘보다’와 ‘앉아있다’ 외에도 특정한 동사와 결합할 때 확장 의미가 나타난다.

(10) 가. 지금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하나요?” 설옥의 말은 협박에 가까웠다.

“개괄해 말하기 바쁜 문제로구만.” “개괄할 것 없이 지배인 동무 자신을 말해 보세요.” 수호는 대답이 궁했다.

중편소설 『청춘약전』(3)/2011.10.24.

나. 기자: 경기 어느 환절에서 졌다고 생각하는가?

감독: 주요하게는 공중뿔에 대한 방어가 차했다.

기자: 혹 오늘 경기가 다른 문제는 없는가?

감독: 말하기 바쁘다.

기자: 9월 2일 북경리공과의 홈경기도 이렇게 치를 것인가? 오늘처럼 익숙하지 못한 상대 뒤풀간을 노리는 롱패스를 고집할 것인가?

감독: 오늘 경기는 롱패스전술이 아니다.

경기운영 정상여부에 매체 기자들 강한 의혹 제기/2009년 08월 31일

예문 (10)과 같이 [동사]의 자리에 '말하다'가 오는 경우 '바쁘다'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연변 방언의 '바쁘다'의 의미 확장 양상을 도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표 5〉 연변 방언 '바쁘다'의 확장 의미

확장 의미	공기관계		용례
	주체	원인	
[주체]가 바쁘다			
필요한 양이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충분하지 아니하다.	[+시간]어휘	X	아침이 항상 바쁘다.
살림이나 생활 따위가 궁핍하여 살기가 고생스럽다.	[+경제]어휘	X	요즘 사정이 바쁘다.
몸이나 마음이 편하지 않고 고통스럽다.	몸, 속	X	숙취로 인해 속이 바쁘다.
하기가 까다로워 힘에 걸다.	[+내용]어휘	X	시험에 바쁘다.
[주체]가 [원인]기 바쁘다			
사정이나 처지가 애처롭고 기없다.	사람	보다	나는 그 아이를 보기 바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다.	사람	말하다	이 문제는 말하기 바쁘다.
너무 더디거나 지루하여 견디기에 진력이 난다.	사람	앉아있다	그 회의에서 나는 앉아있기 바빴다.

이와 같이 연변 방언에는 '바쁘다'가 고빈도로 나타나며 대체로 확장 의미로 많이 쓰인다. '바쁘다'는 기본 의미와 같은 결합형태인 '[주체]가 [동사]+기 바쁘다' 형태로 쓰이지만 기본 의미와 다르게 각각 특정한 동사와 결합하면서 그 의미도 달라진다. [동사]위치에 '보다'가 올 경우 '사정이나 처지가 애처롭고 가엾다'의 의미로 쓰이고 '앉아있다'가 올 경우 '너무 더디거나 지루하여 견디기에 진력이 난다'의 의미로 쓰이며 '말하다'가 올 경우에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

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또 ‘[주체]가 바쁘다’의 경우 기본 의미는 [주체]가 [+유정물]이어야만 의미가 성립되지만 연변 방언에서는 [주체]가 [-유정물]일 때도 자연스러운 문장이 완성되며 따라서 그 의미도 달라진다. ‘시험’, ‘과목’ 등 [+내용]이 있는 어휘와 결합할 때 ‘하기가 까다로워 힘에 겪다’의 의미로 ‘어렵다’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몸’, ‘속’ 등과 결합할 때 ‘몸이나 마음이 편하지 않고 고통스럽다’의 의미로 쓰이며 ‘돈’, ‘생활’, ‘살림’ 등 경제적인 어휘와 결합 할 때 ‘살림이나 생활 따위가 궁핍하여 살기가 고생스럽다’의 의미로 쓰인다.

3. 의미 확장 방향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바쁘다’는 기본 의미와 구별되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면서 의미 확장이 일어났다.

울만(1962)에 의하면 어느 정도 성질이 다른 사물에 적용의 전이가 형성될 때 다의어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적용상의 전의(shifts in application)는 중심의미에서 주변적 의미로 번져나가는 과정을 가리키며 적용의 전이는 일반적인 방향과 타당한 경로에 따라 일어나게 된다. 임지룡(2009)에서는 이 경로를 구체적인 데서 추상적인 데로 확장되는 ‘사람-동물-식물-무생물’, ‘공간-시간-추상’, ‘문자성-비유성-관용성’, ‘물리적 위치-사회적 위치-심리적 위치’, ‘내용어-기능어’ 등으로 나누었다.

우선 ‘바쁘다’의 수식 대상은 ‘사람’으로부터 ‘시간’, ‘돈’, ‘몸’, ‘속’ 등 매우 넓은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이처럼 어휘가 가지고 있는 기본 의미를 다른 대상에 적용하는 것이 곧 의미 확장의 과정이다. 그러나 어떤 어휘가 원래부터 여러 개의 의미들이 실현된다고 이해하면 안 된다. ‘바쁘다’에 ‘힘들다’, ‘어렵다’, ‘딱하다’ 등의 의미가 원래 들어있었다는 잘못된 결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면 ‘바쁘다’는 수식하는 [주체]의 다른에 따라 혹은 [원인]의 다른에 따라 단어의 뜻이 변화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과정에서 작용하는 것

이 '유사성'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확장 방향은 인간 경험의 경향성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사람'의 속성으로부터 '시험', '돈' 등 '사물'의 속성을 나타내는 의미로 확장 되는 경우 역시 사람의 속성과 사물의 속성 사이의 유사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쁘다'에서도 유사성에 의하여 '사람'으로부터 '사물', '시간'에 그 의미가 전의된 경우가 존재한다.

첫째, '사람-사물-시간'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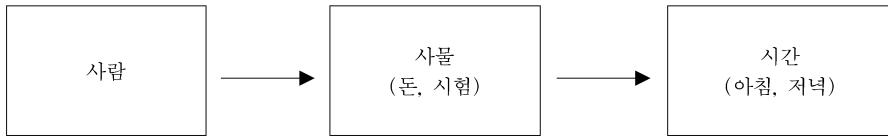
다의적 의미 확장은 인간의 경험이 확장되는 경향성을 고려하여 분류할 수 있으며 새로운 표현을 개발할 때 화자가 구체적인 영역에 의해 추상적인 영역을 개념화하는 경향성에 주목하여야 하며 '사람>사물>활동>공간>시간>질'의 방향으로 의미 확장이 일어난다(임지룡2009).

연변 방언에서 '바쁘다'는 '사람' 뿐만 아니라 '사물', '시간' 등 [주체]와도 결합이 가능하다. '사람'과 결합할 때 기본 의미 '겨를이 없거나 분주한 상태'로부터 '사물'과 결합할 때 예문 (7)과 같이 '시험'이나 '과목' 등[+내용]의 의미자질을 갖고 있는 어휘와 결합하여 '하기가 까다롭거나 힘에 겪다'의 의미로 확장되며 또 이밖에 '돈', '생활형편' 등[+경제]의 의미자질을 갖고 있는 어휘와 결합하여 쓰일 때는 '살림이나 생활 따위가 궁핍하여 살기가 고생스럽다'의 의미로 확장된다.

'바쁘다'가 '아침', '저녁' 등[+시간]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는 어휘와 결합하는 경우는 현대 한국어와 연변 방언에서 모두 사용되고 있다. 이때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없다'의 의미로 확장되어 쓰인다. 그 보기는 예 (11)과 같다.

- (11) 가. 사람이 겨를이 없거나 분주한 상태. (영희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 나. 시간이 부족하거나 없는 상태. (그는 시간이 바빠 아침밥도 못 먹고 집을 나섰다.)
- 다. 살림이나 생활 따위가 궁핍하여 살기가 고생스럽다. (돈이 바쁘면 천천히 갚아도 돼.)

이와 같은 '바쁘다'의 의미 확장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사람에서 사물, 사물에서 시간으로의 전의

‘바쁘다’에서도 이와 같은 의미 확장 방법이 나타나는데 ‘사람에서 사물’, ‘사물에서 시간’의 의미 확장은 연변 방언에서 나타나며 현대 한국어에는 ‘사람에서 시간’의 방향으로만 의미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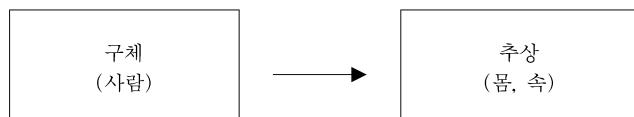
둘째, ‘구체-추상’의 확장

어휘의 의미 확장의 대부분은 구체적인 의미에서 추상적인 의미로 이루어지는 예가 많다. ‘바쁘다’에서도 적용의 전이가 일정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예문 (1가)에서처럼 ‘바쁘다’는 ‘사람’과 결합하여 ‘그 사람이 겨를이 없거나 분주한 상태’를 나타낸다. 하지만 연변 방언에서는 ‘바쁘다’가 ‘사람’뿐만 아니라 예문 (5)와 같이 ‘몸’, ‘속’ 등 어휘와도 결합하여 ‘몸이나 마음이 편하지 않고 고통스럽다’의 의미로 확장된다. 이 때 ‘바쁘다’는 ‘괴롭다’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 보기는 예 (12)과 같다.

- (12) 가. 사람이 겨를이 없거나 분주한 상태. (그는 매일 바쁘다.)
- 나. 몸이 괴롭거나 불편한 상태. (술 때문에 속이 바쁘다.)

이와 같은 ‘바쁘다’의 의미의 구체에서 추상으로의 전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구체에서 추상으로의 전의

'바쁘다'는 구체화에서 추상화로의 전의를 통해 새로운 영역의 대상과 결합할 수 있게 되지만 그 대상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바쁘다'는 [주체]가 '사람'으로부터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오직 추상적인 '몸'이나 '속'과만 결합이 가능하며 눈으로 보이는 신체 부위인 '팔', '다리' 등과는 결합이 불가능한 특징이 있다.

셋째, '문자성-관용성'의 확장

임지룡(2009)에서는 의미 확장의 경로는 문자성을 기점으로 하여 비유적 확장을 거쳐, 관용적으로 고착화된다고 하면서 이 유형의 의미 확장 경로를 '문자성-비유성-관용성'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관한 예문으로 '짧다'를 예로 들 수 있다.

- (13) 짧다 가. 문자적 짧음. (토끼는 앞발이 짧다.)
- 나. 비유적 짧음. (그는 외한국어 실력이 짧다.)
- 다. 관용적 짧음. (우리 집 양반은 입이 짧다.)

예 (13ㄱ)에서의 '짧다'는 '잇닿아 있는 공간이나 물체의 두 끝의 사이가 가깝다'의 의미로 기본 의미에 해당한다. 즉 이때의 '짧다'는 문자가 가지는 의미 그대로 표현되었다. (13ㄴ)의 경우 '실력이 부족하다'를 '두 끝의 사이가 가깝다'의 의미와 비유적으로 쓰면서 그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따라서 '짧다'가 '실력이 부족하다'의 의미로 확장되었다. '학력이 짧다' 등 용법도 이와 같은 용법으로 '짧다'가 비유적으로 의미 확장을 진행하여 얻어진 의미이다. (13ㄷ)는 비유적으로 쓰이던 의미가 점차적으로 고착되어 고정적으로 쓰이면서 특정한 어휘와 공기할 때 특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 '관용적 의미 확장'이다. (13ㄷ) 경우 '입이 짧다'가 원래는 '음식을 심하게 가리거나 적게 먹는다'의 의미가 '짧다'의 기본 의미와 비유적으로 쓰이다가 점차 '짧다'가 '입'과 공기할 때 이와 같은 의미로 고정된 경우이다.

이와 같은 의미 확장 방향은 연변 방언 '바쁘다'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문자성-관용성'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쁘다’의 기본 의미는 '[주체]가 [원인]+기 바쁘다'의 결합 형태로 '[주체]가 [원인]으로 겨를이 없거나 분주한 상태'의 의미를 갖는다. 이때 [원인]은 ‘동사’로서 명사형 전성 어미 ‘-기’가 붙는다. ‘철수는 아이들 먹여살리기 바쁘다’는 ‘철수는 아이들 먹여 살리는 데 겨를이 없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다. 그러나 연변 방언에서는 ‘바쁘다’가 특정한 동사와 공기할 때 이런 기본 의미 외에 특정한 확장 의미를 갖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예 (14)와 같다.

- (14) 가. 사정이나 처지가 애처롭고 가엾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그 아이가 너무 보기 바쁘다.)
- 나. 너무 더디거나 지루하여 견디기에 진력이 나다. (그 회의에서 나는 앉아 있기 바빠 혼났다.)
- 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다. (나는 그 사실을 그와 말하기 바빴다.)

예문 (14)는 모두 ‘바쁘다’의 관용적인 의미 확장의 예이다. (14가)는 ‘바쁘다’가 동사 ‘보다’와 공기할 때 기본 의미에서 ‘사정이나 처지가 애처롭고 가엾다’의 의미로 확장 된다. 이 의미는 『조선말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의미인 만큼 연변 방언에서 사용 빈도가 높으며 신문 잡지나 방송 등 규범화된 매체에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의미이다. (14나)는 ‘바쁘다’가 동사 ‘앉아있다’와 공기할 때 그 의미가 ‘너무 더디거나 지루하여 견디기에 진력이 나다’라는 의미로 확장된다. (14다)는 ‘바쁘다’가 동사 ‘말하다’와 공기할 때 그 의미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다’로 확장된다. (14다)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 용례를 수집한 결과 동사 ‘말하다’ 외에 ‘대답하다’, ‘묻다’ 등 어휘와도 어느 정도 결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15) 가. 그가 다그쳐 물자 나는 대답하기 바빠 우물쭈물하고 말았다.

중편소설 『청춘약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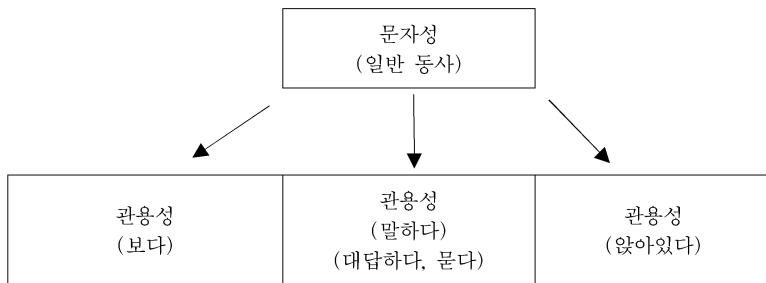
- 나. 더군다나 힘들어하는 명자에게 그 일에 대해 물어보기 바빴다.

녀택시운전수가정에 쏠린 사랑의 마음/2008년 04월 23일

(15)의 경우 용례에서 모두 단 한 건씩 발견이 되었으며 문맥상 각각 모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다’의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 연변 방언을 구사하는 사람

들의 설문 조사를 통해 '바쁘다'가 동사 '대답하다'와 '묻다'와의 결합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실생활에서도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와 같은 '바쁘다'의 문자적 의미에서 관용적 의미로의 전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문자성에서 관용성으로의 전의

'바쁘다'의 '문자성-관용성' 의미 확장에서 '말하다'와 결합할 때 특정한 의미로 사용되던 것이 확산되어 실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문자 자료에서도 '대답하다'와 '묻다'와 결합하는 경우를 찾을 수 있다. '말하다'는 일인칭 화자의 발화로서 이와 비슷한 일인칭 화자의 발화와 관계되는 '대답하다', '묻다' 등과도 결합되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으로 연변 방언 '바쁘다'의 의미 확장 방향을 논의 하였으며 그 의미 확장 방향의 다양한 양상을 포착하였다. 이런 점에서 의미의 변화라는 것이 무척 자유롭고 창의적인 현상이며 의미 확장에 작용하는 인지적 과정은 사회, 문화적 환경 등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의미 확장 원인

중국 연변 방언은 특수한 환경에 처해있는 만큼 조선어의 '바쁘다'가 한국어의 '바쁘다'보다 다양한 확장의미를 보이는 것은 다양한 영향을 받은 결과일 수 있

다. 연변 조선족은 대부분 한반도에서 이주해간 이주민으로 중국이 해방되어서 부터는 북한의 문법과 어휘정책을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어권 속에서 발전하다보니 중국어의 영향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연변 방언 ‘바쁘다’의 의미 확장 원인을 다를 때 이런 요소는 모두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중국어의 경우 ‘바쁘다’를 뜻하는 ‘忙’이나 ‘어렵다’를 뜻하는 ‘難’, ‘힘들다’를 뜻하는 ‘辛苦’ 등은 모두 그 의미와 사용이 분명하기에 혼용되는 현상이 없다. 이밖에 북한에서의 ‘바쁘다’의 경우 사전에는 연변 방언에서 사용되고 있는 뜻이 일부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 하여 연변 방언의 ‘바쁘다’는 북한 어휘의 의미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바쁘다’의 의미가 고대의 다양한 의미에서 현재 한국어의 의미와 같이 의미가 축소되고 연변 방언에만 그 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이는 통시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런 의미들이 생성된 원인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통시적인 고찰은 이 글에서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앞에서 보다시피 ‘바쁘다’는 아주 넓은 영역에 속하는 어휘들과 결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결합을 통하여 다양한 의미를 나타낸다. 그럼 ‘바쁘다’가 넓은 영역의 어휘들과 결합하면서 여러 가지 확장 의미를 갖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유사한 어휘이거나 의미가 비슷한(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어휘는 머릿속 어휘부(mental lexicon)에서 가까운 곳에 저장되는 경향이 있다. 화자가 발화시 머릿속 어휘부에서 어떤 단어를 끄집어낼 때 그 단어를 정확하게 끄집어 내지 못하고 그 근처에 위치한 다른 단어를 잘못 끄집어내는 실수를 발화에서 흔히 한다. 예컨대, 우리는 실생활에서 ‘왼쪽’이라고 해야 하는데 ‘오른쪽’이라고 하는 실수를 흔히 범하게 되는 것 등이다. 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는 음상도 비슷하고 의미상으로도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 더욱 혼동하기가 쉽게 된다.

이렇게 인출(retrieval) 시의 실수나 혼동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고 언어 체계에서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혼동이 자꾸 반복적으로 나타나다 보면 어휘부에서 인접한 두 단어가 점차 더 닮아갈 수 있고 이것이 정착될 수도 있다(박진호2015).

즉 이런 현상을 박진호(2015)에서는 언어의 의미의 전염이라고 개념화 하였으며 이런 전염의 발생 원인은 어휘부에서의 근접한 저장 위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의 전염은 한 문장 속에 같이 출현하는 단어들 사이에서 일어나기보다는 어휘부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단어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게 된다. 한국어의 '굵다'와 '두껍다' 그리고 '가늘다'와 '얇다'가 이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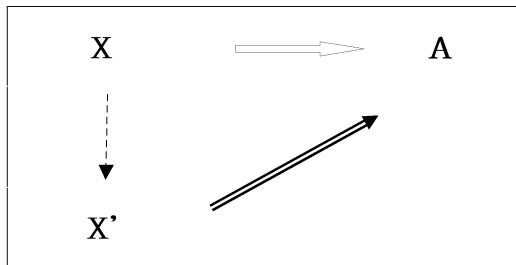
원래 우리는 원통형 물체의 둘레가 큰 것을 '굵다'로 표현하고 둘레가 작은 것을 '가늘다'라고 표현한다. 2차원 평면형의 물체의 두께에 대해서는 '두껍다'와 '얇다'로 표현한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두껍다'와 '얇다'가 '굵다'와 '가늘다'의 의미 영역을 침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16) 가. 다리가 굵다./ 다리가 가늘다.
 나. 다리가 두껍다./ 다리가 얇다.

예문 (16)과 같이 '다리가 굵다/가늘다'라고 해야 하는 것을 '다리가 두껍다/얇다'로 표현하는 것이다. 윗세대에서는 '굵다'와 '두껍다' 그리고 '가늘다'와 '얇다'가 의미상 분화되어 있었으나 젊은 세대에게는 '두껍다'와 '얇다'의 의미가 '굵다'와 '가늘다'의 의미까지 포함하도록 확장된 것이다. 이런 현상 역시 '두껍다'와 '얇다'의 의미가 '굵다'와 '가늘다'의 의미에 전염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의 의미가 머릿속 어휘부에서 매우 가깝게 위치하다 보니 전염이 일어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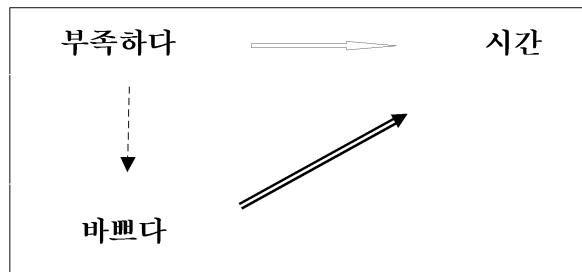
전염은 일종의 유추(analogy)이며 의미의 전염은 유추에 의한 의미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박진호(2015)에서는 유추의 논리는 'A와 B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A가 이러하니까 B도 이어할 것이다. 또는 이어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추의 논리를 의미의 전염에 적용하면 '단어X가 A를 나타낸다면 X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준 단어 X'도 A를³⁾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가 된다고 하고 있다. 유추에 의한 의미 전염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 박진호(2015)에서는 의미의 전염의 예로 중국어 '意見'과 '看法'을 들고 있다. '意見'은 원래 가치평가에 있어 중립적인 의미이나 '有'뒤에 쓰일 때는 '어떤 일에 대한 불만스러운 의견'이라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지니게 된다. '看法' 역시 중립적으로 쓰이나 요즘은 '有'뒤에서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이고 있다. 원래 가치중립적인 의미일 때 두 단어는 매우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데 '意見'의 부정적 뉘앙스가 '看法'에 전염된 것이다. 예문과 전반 논문의 전개를 볼 때 A'로 되어 있으나 이는 A가 되어야 합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A로 표기하였다.



〈그림 4〉 유추에 의한 의미 전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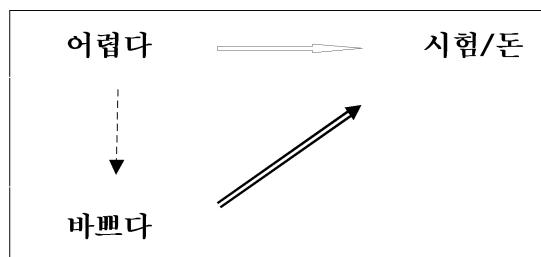
우리는 ‘바쁘다’의 의미 확장 원인도 유추에 의한 의미 전염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원래 필요한 양이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충분하지 않은 상태를 ‘부족하다’로 표현하고 사람이 일이 많거나 급해서 분주하고 겨를이 없는 상태를 ‘바쁘다’로 표현한다. 두 어휘의 의미를 보면 모두 어떤 현상에 대해 평가하는 [+평가성], 행동주가 이런 현상 속에서 느껴질 [-긍정], 모두 주어진 임무를 이행할 시간이 넉넉하지 못한 [-시간]의 의미자질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형용사들이다. 이런 공통된 부분이 존재로 인하여 ‘부족하다’와 ‘바쁘다’가 ‘시간’을 나타낼 때에는 모두 쓰이고 그 사용이 점차 빈번해 지면서 ‘부족하다’의 의미가 ‘바쁘다’의 의미에 전염된다.



〈그림 5〉 ‘부족하다’에 의한 ‘바쁘다’의 의미 전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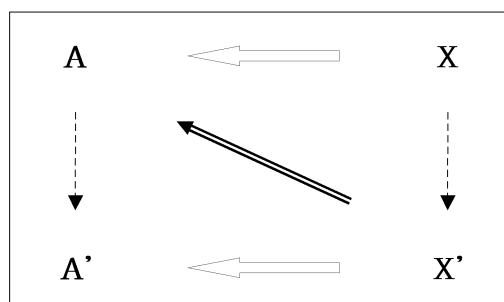
이밖에 연변 방언에서만 사용되는 확장 의미인 ‘시험이 바쁘다’, ‘돈이 바쁘다’ 등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의미 확장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어렵다’는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지는 다의어로 살림이나 생활 따위가 궁핍하여 살기가 고생스

러움을 나타낼 때 쓰이기도 한다. '어렵다'와 '바쁘다'도 [+평가성], [-긍정], 어떤 일을 하기 위한 행동주의 [+고생], [+빠듯함]의 의미자질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의 유사성으로 인해 '어렵다'의 의미가 '돈/살림이 바쁘다'와 같이 '바쁘다'에 전염된 것으로 보인다. '어렵다'는 또 파생 의미로 무엇이 까다롭고 힘든 것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두 어휘 모두 [+평가성], [-긍정], 행동주의 [+힘듦], [+수고] 등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유사한 의미자질로부터 그 의미가 '바쁘다'에 전염되어 '시험/돈이 바쁘다'로 쓰이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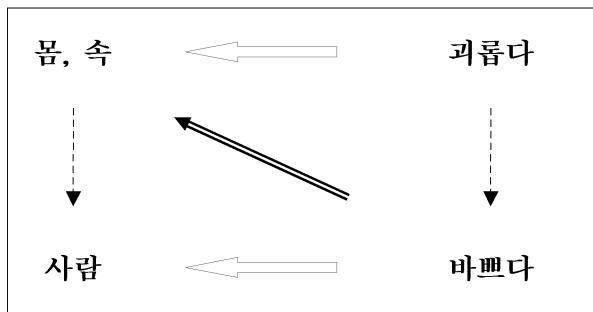
〈그림 6〉 '어렵다'에 의한 '바쁘다'의 의미 전염

이밖에 박진호(2015)에서는 환유에 의한 의미 확장은 A를 나타내던 언어요소가 A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B도 나타내게 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A를 나타내는 표현 X가 있다고 할 때, A와 밀접히 관련된 A'를 나타내는 다른 표현 X'을 사용하여 A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하였다. 환유에 의한 의미 확장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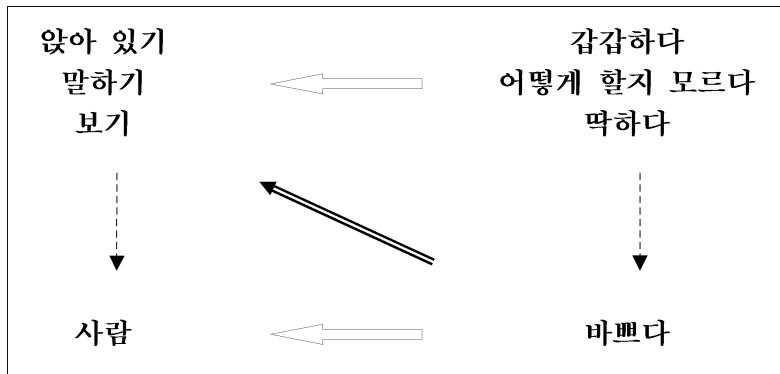
〈그림 7〉 환유에 의한 의미 전염

‘바쁘다’의 기본 의미의 주체는 [+유정물]로 ‘사람’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몸’, ‘속’ 등은 ‘사람 인체’의 일부분으로 ‘사람’과 밀접히 관련된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 바쁘다’는 사람이 겨를이 없거나 분주한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로서 ‘몸이나 속이 겨를이 없거나 분주한 상태’가 되면 아마도 괴로울 것이다. 하여 ‘몸이 괴롭다’를 ‘몸이 바쁘다’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림 8〉 환유에 의한 ‘바쁘다’의 의미 전역 1

이밖에 ‘바쁘다’가 특정한 동사와 결합할 때에도 환유에 의한 의미 전염이 일어나는데 ‘앉아있기 바쁘다’, ‘보기 바쁘다’, ‘말하기 바쁘다’에서의 ‘바쁘다’가 그러한 경우이다. ‘앉아있기 바쁘다’의 ‘바쁘다’는 ‘갑갑하다’와 연관 지을 수 있는데 너무 더디거나 지루하여 견디기에 진력이 나는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다. ‘앉아있기 갑갑한 것’은 행동주가 ‘앉아있는 것’에 대한 ‘불편하고 불쾌하며 힘들다’를 뜻하는 말이며 행동주가 ‘바쁠 때’도 그 상태에 대해서 이와 비슷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하여 ‘사람’의 분주하고 겨를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바쁘다’로 사람의 구체적인 행동인 ‘앉아있다’와 결합하여 ‘갑갑하다’의 뜻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말하다’, ‘보다’ 등 단어와 결합하여 각각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다’, ‘딱하다’ 등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림 9〉와 같다.



〈그림 9〉 환유에 의한 '바쁘다'의 의미 전역 2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연변 방언 '바쁘다'는 유추와 환유에 의한 의미 전염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유추에 의한 의미 확장은 머릿속 어휘부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단어의 의미의 전염을 받은 경우와 그 단어가 또 자신과 인접한 위치의 단어의 의미에 전염된 후 '바쁘다'가 2차적으로 그 의미의 영향을 받는 등 두 가지 현상이 존재한다.

5. 결론

지금까지 연변 방언 '바쁘다'의 의미 확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를 간추려 이 글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우선 '바쁘다'의 기본 의미를 설정하기 위하여 현대 한국어 각 사전에 기술된 '바쁘다'의 의미 정보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각 사전에서 '바쁘다'는 다의어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문장을 통해서 이들의 구체적인 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사전적 정보와 문맥을 통해 '바쁘다'의 기본 의미는 '[주체]가 [원인]으로 겨를이 없거나 분주하다'로 이때 [주체]는 [+유정불]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원인]에는 각각 체언과 동사가 각각 결합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단어의 확장 의미를 포착하려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의 이상적인 의미

보다 다양한 문맥에서 사용되는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연변 방언의 ‘바쁘다’는 실생활에서 사전에 기술 되지 않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연변 방언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신문기사, 소설, 매체 등을 이용하여 용례를 추출하여 분석하여 의미 확장의 양상, 방향 및 원인을 고찰하였다. 하여 ‘바쁘다’가 문맥이나 사용된 상황에 의해서 공기하는 어휘의 범주변화에 따라 유정물로부터 사물, 시간 등에까지 의미 전이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원인]범주에 특정한 ‘보다’, ‘말하다’, ‘앉아있다’ 등 동사가 올 때 의미 전의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변 방언 ‘바쁘다’의 의미 확장 방향은 사람에서 사물로, 다시 사물에서 시간으로의 방향으로 이루어졌고 한국어의 ‘바쁘다’의 의미 확장은 오직 사람에서 시간으로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변 방언의 ‘바쁘다’는 구체에서 추상으로 의미 확장이 이루어지며 문자적 의미로부터 관용적 의미의 방향으로 의미 확장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의미 확장의 원인은 의미의 전염에 있다. 머릿속 어휘부에서 가까운 곳이거나 비슷한 의미로 저장된 단어에서 의미가 전염된 것으로 연변 방언 ‘바쁘다’는 유추와 환유에 의한 의미 전염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연변 방언의 ‘바쁘다’는 실생활에서 이미 위와 같은 여러 확장 의미로 활발히 쓰이고 있기 때문에 『조선말사전』 혹은 한국어 방언사전에 이에 관한 뜻풀이 기술도 고려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런 구체적 현상을 바탕으로 ‘바쁘다’의 의미 확장 사실을 추적해 볼 수 있었지만 이외에도 연변 방언에는 현대 한국어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바쁘다’처럼 의미 확장이 일어난 경우, 의미 전이가 일어난 경우, 의미 축소가 일어난 경우 등 여러 가지 현상이 존재한다. 이에 관한 연구는 추후로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작업은 방언의 어휘 의미 변화에 대한 연구에 도움이 되며 한 언어를 사용하는 두 부류의 언중들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 있어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바쁘다, 의미 확장, 의미 차이, 양상, 방향

투고일(2017. 9. 30), 심사시작일(2017. 10. 17), 심사완료일(2017. 10. 31)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2009), 『한국어대사전』, 창작마을.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남경완(2008), 『국어 용언의 의미 분석』, 태학사.
- 박기숙(2011), 「한국어와 중국조선어 비교를 통한 어휘교육」, 석사학위논문(경희대학원).
- 박진호(2015), 「언어에서의 전염 현상」 『언어』 40.
- 박춘설(2012), 「중국 조선족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 한국어와 중국조선어 어휘 차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서울대 대학원).
- 박홍매(2014), 「연변 방언 형용사의 형태·의미 연구: 한국어와 대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동의대 대학원).
- 연세대학교(1998), 『연세 한국어사전』, 두산동아.
- 은려려(2013), 「특이한 의미확장에 대한 연구」 『중국조선어문』 183,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 이정희(2002), 「남북한과 중국 어휘 비교」, 석사학위논문(충남대 대학원).
- 이주행(2003), 「남한과 중국 조선족 사회의 언어 비교 연구」 『언어과학연구』 26.
- 임지룡(2009), 「다의어의 판정과 의미 확장의 분류 기준」 『한국어 의미학』 28.
_____ (2009), 『국어 의미론』, 탑출판사.
- 임태성(2015), 「'빨다'의 의미 확장 연구」 『한글』 309.
- 연변인민출판사(1983), 『조선말 대사전』.
- 전학석(1998), 「연변 방언」 『새국어생활』 8.
- 정향란(2010), 「연변 방언의 곡용과 활용」, 한국학술정보.
- 차준경(2004), 「국어 명사 다의 현상의 체계성 연구」, 박사학위논문(고려대 대학원).
- 최명옥 외(2002), 『함북북부지역어 연구』, 태학사.
- 최호철(1995), 「의소와 의의에 대하여」 『국어학』 25.
_____ (1999), 「현대 국어 '털다, 떨다, 털다'의 의미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3.
- 한글학회(1992),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Abstract〉

A Study on the Meaning Extension of ‘바쁘다’ Dialects in
Yanbian area in China

QUAN ENJING *

In our language, there are many cases where one word is used in various meanings. Sometimes there is meaning which is used in real life although it is not published in dictionary. In the case of ‘바쁘다’, the meanings of the words in the modern Korean language are similar to each dictionary. However, ‘바쁘다’ in the dialect of the Yanbian area in China has been actively used in a wide variety of meanings other than the meaning described in the modern Korean dictionary. Currently, the meaning of ‘바쁘다’ in the Korean dictionary used by the Korean-Chinese dialects is not described in the modern Korean dictionary, but there is a lot of meaning that is actively used in real life and in the media.

This paper deals with the expansion of the meaning of ‘바쁘다’ in the Yanbian dialect and aims to clarify the extension direction and cause of the meaning of ‘바쁘다’. In addition, we want to compare the meaning of ‘바쁘다’ in Korean and the meaning of ‘바쁘다’ in Yanbian dialect. By showing clearly the difference of meaning to the Korean-Chinese who want to speak Korean well, It is helpful to learn Korean by clearly showing the difference of meaning to Korean-Chinese who want to speak Korean well. It will also be useful in developing pre-technology, teaching materials, and exchanging information between the two communities.

Key Words : bappeada(바쁘다), meaning extension, semantic difference, modality, direction

* Ph.D. Student,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 University.